

# Latent Profile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NS Addiction in COVID-19 Pandemic Period

## COVID 19 시기의 청소년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잠재프로파일 유형화와 SNS중독

Ji-Yeon Yoon<sup>1</sup>, Hye-Young Min<sup>2</sup>, Mi-Sun Yoo<sup>3</sup>, Bo-Yeon Huh<sup>4</sup>, Young-Min Park<sup>5</sup>

윤지연<sup>1</sup>, 민혜영<sup>2</sup>, 유미선<sup>3</sup>, 허보연<sup>4</sup>, 박영민<sup>5</sup>

<sup>1</sup> *Researcher Institute for Life and Culture, Soga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y-research@naver.com*

<sup>2</sup> *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oga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hopeblower@gmail.com*

<sup>3</sup> *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oga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yyjkj@hanmail.net*

<sup>4</sup>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oga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poohgj@naver.com*

<sup>5</sup>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oga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developmt1@gmail.com*

*Corresponding author: Hye-Young Min*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ategorize adolesc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o find out whether typification affects SNS addiction. To this end, Latent Classes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a total of 646 teenagers who responded to the 2022 Community Youth Opinion Survey conducted by Sogang University's Life Culture Research Institute, and one-way ANOVA was conducted to verify the difference between types. As a result, firs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dolesc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was classified into four groups, and they were named 'communication facilitation', 'communication deficits', 'communication intermediate', and 'momentive communication'. Second, about 80% of the total study subjects belonged to the lower-middle group in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communication with mothers was found to be high in all groups. Third, Among the types of adolesc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during the COVID-19, 'communication deficits' showed higher levels of SNS addiction than the 'communication facilitation', which resulted in the same results compared to the 'communication intermediate', and 'momentive communicatio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with adolescent parents was confirmed, and the direction of intervention was suggested in relation to it.

**Keywords:** Addiction, Adolescence, Parent-child Communication, SNS

**요약:**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시기의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유형화하고, 유형 간 SNS 중독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2022 년 지역사회 청소년 의견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총 646 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

Received: January 14, 2023; 1<sup>st</sup> Review Result: February 28, 2023; 2<sup>nd</sup> Review Result: March 24, 2023  
Accepted: April 30, 2023

프로파일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나뉜 유형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One-way ANOVA 를 실시하였다. 주요결과는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은 4 개의 하위집단으로 유형화되었으며 각 프로파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통취약형(9.4%)’, ‘소통 중간형(70.1%)’, ‘소통원활형(15.5%)’, ‘모편향소통형(4.3%)’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전체 연구 대상의 약 80%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중간 이하의 집단에 속했으며, 유형화를 통해 도출된 네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중 ‘소통취약형’이 ‘소통원활형’보다 청소년 자녀들의 SNS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편향소통형’과 ‘소통중간형’과의 비교에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개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중독, 청소년기, 부모-자녀 의사소통, SNS

## 1. 서론

2019년 COVID-19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장기간의 고립 상황은 사회적으로 큰 도전이 되었다. 세계보건기구가 2020년 1월 COVID-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격상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동과 만남을 규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었으며, 이는 청소년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4월 비대면 원격수업 위주의 수업 방식 도입되면서 청소년의 주요 활동공간이 기존의 학교에서 가정으로 대부분 재편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섯가족부가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해 ‘학교생활 영역’이 가장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생겨난 여유시간을 관리하기 힘든 경우 학습 및 적응에 어려움이 생기며[2], 새로운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는 것이다[2-5].

COVID-19로 인해 청소년에게 사회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소통 대상’과 ‘소통 방식’이다. ‘소통 대상’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감소함으로써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COVID-19 팬데믹으로 가정에서 수업을 받고 생활하게 된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시간을 더 길게 보내게 되었다. 실제로 COVID-19 팬데믹 전인 2017년에 비해 COVID-19 팬데믹 중인 2020년 청소년이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1], ‘책, TV, 영화 등 미디어에 대한 대화’와 ‘정치 및 사회에 대한 대화’로서 각각 3.3%p 증가했으며, 여가활동에 대한 대화도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소통 방식은 수업의 전달 방식이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것과 맞물려 온라인 위주로 변화되었다. 또래 친구와 만나는 공간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6]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3명 중 2명은 COVID-19로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이용때문에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율도 19.1%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 같은 변화는 청소년을 행위중독으로 이끌 수 있는데, 다수의 연구들에서 COVID-19로 인한 스마트폰 및 미디어 중독 상황은 SNS 중독, 온라인게임 중독, 비디오게임 중독 등에 관해 보고된 바 있다. Király 등[7]은 팬데믹 관련

스트레스, 외로움은 SNS중독과 연관될 수 있음을 밝혔다. COVID-19 팬데믹 시기 소셜미디어와 SNS 사용변화를 조사한 연구를 보면, SNS 사용시간, 중독적 사용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8][9].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0]에서 게임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COVID-19 팬데믹 기간동안 그 이전에 비해 인터넷, 스마트폰, SNS, 온라인게임, 오프라인(off-line) 게임, 비디오 동영상 시청 등 모든 디지털미디어 이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윤지영 등[11]의 연구에서는 COVID-19 기간 중 대안활동 부족과, 온라인 수업 환경이 게임에 대한 유혹과 기회를 증가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는 성인기와 비교하여 탈중독하기에 좀 더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12],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발달 과정 중인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과다 사용하는 경우 청소년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영향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13], 이를 중재하기 위한 방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Brand 등[14]의 I-PACE(Interaction of Person-Affect-Cognition-execution)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PACE 모델은 인터넷 사용 장애의 사람-영향-인지-실행의 상호 작용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원인에 따라 자극에 대한 정서 반응이 달라지며, 이때 동반하는 대처 행동의 반복과 보상과 만족에 따라 행위중독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한 것[1]은 행위중독의 일종인 SNS 중독을 조절할 수 있는 변수로서 의미가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청소년기의 중독이 달라진다는 결과가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15][16].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등은 청소년의 SNS 중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7],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 애착이 부정적일 때 SNS중독에 영향을 미치고[18],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아짐에 따라 SNS중독 수준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19][20].

한편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는 의사소통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란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하면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작용 과정으로[21], Thomas[22]는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하기도 하고 악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부모-자녀 간에 폐쇄적이고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스마트폰 중독과 SNS 중독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3][24].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모-자녀 의사소통, 부-자녀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을 자주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는 어머니가 스마트폰 사용을 감독함으로써 사용 빈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25]. 다음은 부와 자녀도 역시 의사소통 질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진다고 밝혀진 한편[26], 부-자녀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증가할수록 청소년기 자녀의 외로움과 대인관계 문제가 감소하고, 스마트폰 중독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부와 모의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8].

종합해보면,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결핍과 스트레스는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며

COVID-19 팬데믹 시기에 청소년기 자녀의 주요 활동 환경이 가정으로 이동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의 성격은 자녀의 SNS중독 위험성을 낮추는 데 주요 변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SNS중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 유형을 탐색하고 유형에 따라 자녀의 SNS 중독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청소년의 주된 사회적 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SNS중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문제 1. 청소년과 부모의 의사소통 잠재프로파일 집단은 어떻게 분류되며 집단별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COVID-19로 인한 청소년과 부모의 의사소통 잠재 프로파일 집단에서 SNS 중독에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가 전문 설문조사업체를 통해 진행한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의견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총 646명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성 234명(36.2%), 여성 412명(63.8%)이며, 중학생 277명(42.9%)이고 고등학생 233명(36.1%), 평균연령은 만 15.8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간수준이 253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61명(24.9%), 낮은 수준이 138명(21.4%) 순이었다. 부모 학력은 부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365명(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 학력 역시 대졸 이상인 경우가 352명(54.5%)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 직업의 경우 부 직업이 있는 경우가 596명(92.3%)으로 대부분의 부 직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 직업은 448명(69.3%)이 ‘있다’고 응답해 부 직업에 비해 모 직업이 있는 경우가 20% 정도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연구대상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tudy Sample

변수	구분	빈도(명)	%
성별	남성	234	36.2
	여성	412	63.8
학교	중학생	277	42.9
	고등학생	233	36.1
본인 성적	매우 낮은수준	41	6.3
	낮은수준	138	21.4
	중간	253	39.2
	높은 수준	161	24.9
	매우 높은 수준	53	8.2
부 학력	고졸이하	178	27.6

	대졸이상	365	56.5
	기타	103	15.9
모 학력	고졸이하	204	31.6
	대졸이상	352	54.5
부 직업	기타	90	13.9
	있다	596	92.3
	없다	19	2.9
모 직업	부 안계심	19	2.9
	있다	448	69.3
	없다	180	27.9
	모 안계심	12	1.9

n=646

## 2.2 측정 도구

### 2.2.1 부모와의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문항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29]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들을 측정 도구로 활용하였다. 본 측정도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구성된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문항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아빠/엄마에게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아빠/엄마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아빠/엄마는 내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 잘 짐작하신다.’, ‘나는 아빠/엄마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등의 문항에 대해 ‘부’와 ‘모’ 각각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는 ‘부 의사소통’의 경우 .912, ‘모 의사소통’의 경우 .92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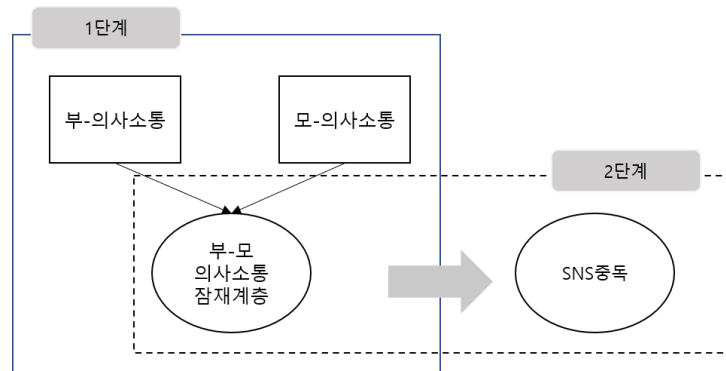
### 2.2.2 SNS 중독

부모-자녀 의사소통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영향을 받는 SNS 중독 관련 변인으로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오윤경[30]이 개발한 SNS 중독 경향성 측정 문항을 조성현과 서경현[31]이 보완한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구성된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에 활용한 ‘SNS 중독 경향성’ 문항은 SNS 집착 및 금단증상, SNS 과잉소통 및 몰입, SNS에 대한 과도한 시간투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는 .95로 높게 나타났다.

## 2.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2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1단계 분석으로서 청소년과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Mplus 8.8 프로그램을 활용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잠재되어 있는 대상을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사람중심의 접근(person-centered) 방법으로서[32], 본 연구의 연구주체인 COVID-19시기의 청소년기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을 탐색하고 유형별로 SNS 중독의 차이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개별화된 접근방법을 제시하기에 적합하다[33].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계층의 분류의 질, 적합도 지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는데 정보 기반 적합도 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sBIC(sample size-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와 추정된 개별사례로부터 각 잠재 집단의 소속 확률이 하나의 집단에 나타남을 토대로 주어진 집단에 얼마나 잘 분류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값인 Entropy[34], 이러한 지표들과 함께 연구자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요소인 집단의 크기, 해석 가능성[35]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4개의 집단을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분석으로는 부-모 의사소통의 잠재 프로파일이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 별로 SNS 중독 차이를 One-way ANOVA로 검증하였다.



[그림 1] 분석모형

[Fig. 1] Analysis Model

### 3. 연구 결과

#### 3.1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수 결정

[표 2] 잠재 프로파일 분류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Latent Profile Analysis Models for Classes 2-5

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2개	3개	4개	5개
정보지수	AIC	17325.66	17239.64	<b>17190.84</b>	17146.5
	BIC	17383.78	17320.12	<b>17293.67</b>	17271.68
	SABIC	17342.51	17262.97	<b>17220.64</b>	17182.78
Entropy		0.84	0.82	<b>0.85</b>	0.83
LMRT p-value		0	0.02	<b>0.03</b>	0.01
잠재 프로파일 별 분류 별 수(%)	계층1	540(83.6)	50(7.7)	<b>61(9.4)</b>	56(8.7)
	계층2	106(16.4)	504(78.1)	<b>28(4.3)</b>	428(66.3)
	계층3		92(14.2)	<b>457(70.7)</b>	98(15.2)
	계층4			<b>100(15.5)</b>	31(4.8)
	계층5				33(5.1)

n=646

부모와의 의사소통 잠재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집단 수를 2개에서 5개까지 증가시키면서 정보 지수, 모형 비교 검증, 분류의 질, 분류율 결과의

비교를 통해 적절한 잠재 프로파일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으며, 가장 적절한 잠재 프로파일의 집단 수는 4개로 확인되었다.

잠재 프로파일 집단 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AIC, BIC, SABIC는 잠재 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나, 3개에서 4개로 잠재 프로파일 수가 증가하였을 때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ENTROPY 지수는 잠재 프로파일 수가 4개일 때 1에 가장 가까운 0.85로 나타나 4개의 잠재 프로파일 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비교 검증을 위한 LMRT에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모든 유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집단 별 사례 수의 비율과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34],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선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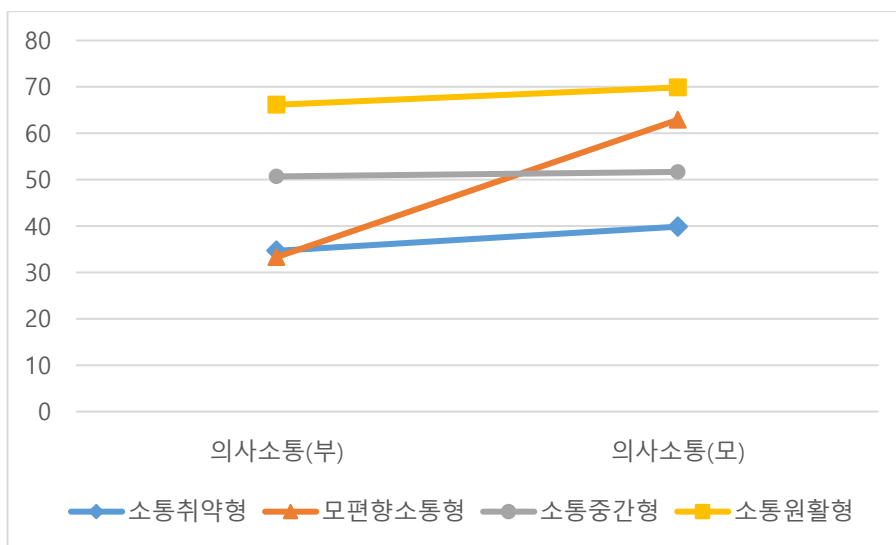
### 3.2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의 특성 분석

잠재 프로파일이 4개로 분류된 부모와의 의사소통 특성의 평균은 [표 3], [그림 2]와 같다. 집단 1은 의사소통(부)와 의사소통(모) 모두 낮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나 ‘소통취약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2는 의사소통(부)의 수준은 가장 낮은 반면, 의사소통(모)의 수준은 전체 집단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따라서 ‘모편향소통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3은 의사소통(부)와 의사소통(모) 모두 전체 집단 중 중간 수준을 보여 ‘소통중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4는 의사소통(부)와 의사소통(모) 모두 전체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기에 ‘소통원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3] 집단 별 부모와의 의사소통 특성 평균

[Table 3] Average of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with Parents by Group

구분	집단1: 소통취약형 (9.4%)	집단2: 모편향 소통형 (4.3%)	집단3: 소통중간형 (70.7%)	집단4: 소통원활형 (15.5%)
의사소통(부)	34.65	33.31	50.7	66.15
의사소통(모)	39.87	62.90	51.66	69.88



[그림 2] 분류된 잠재 프로파일 형태

[Fig. 2] Item-response Probabilities for Dolesc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across Four Classes

### 3.3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잠재 프로파일의 SNS 중독 집단 차 비교

4개 프로파일에 대해 SNS중독 차이를 One-way ANOVA로 검증한 결과 4개 프로파일의 SNS중독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사후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소통원활형의 SNS중독 수준이 다른 유형의 SNS중독 수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잠재 프로파일의 SNS 중독차이

[Table 4] Differences in SNS Addiction in Potential Profiles of Adolesc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집단명	N	M	SD	SE	F	p	비고
소통취약형 <sup>1)</sup>	61	46.08	13.68	1.75	17.25	.000***	1>4*** 2>4* 3>4***
모편향소통형 <sup>2)</sup>	28	42.18	13.61	2.57			
소통중간형 <sup>3)</sup>	457	43.60	13.65	0.64			
소통원활형 <sup>4)</sup>	100	33.61	11.35	1.14			
평균	646	42.22	13.82	0.54			

\*\*\* $p<.001$  \*\* $p<.01$  \* $p<.05$

## 4. 결론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시기에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유형화하고, 유형 간 SNS 중독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의견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총 646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나눠진 유형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부와 모로 나누어 구성하고, 잠재 프로파일 모형을 이용해서 하위집단이 몇 개의 그룹일 때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적합한 모형인지를 비교 선택하면서, COVID-19 팬데믹 시기의 청소년기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하위집단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은 4개의 하위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각 프로파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통취약형(9.4%)’, ‘소통 중간형(70.1%)’, ‘소통원활형(15.5%)’, ‘모편향소통형(4.3%)’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의 약 80%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중간 이하의 집단에 속했으며, 소통이 원활한 집단은 전체 1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COVID-19 시기의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36]를 볼 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이며 동시에 자녀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일차적인 환경이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서로의 가치와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자아정체성을 성립해나가는 주요한 매개가 되며 이는 청소년기 자녀의 중요한 발달적인 공간인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36]. 따라서 부모 자녀 사이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에게 있어 자율적이고 자주적이며 책임감 있는 개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37]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촉진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 교육현장과 연결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마련하여 부모의사소통을 청소년 교육활동의 주요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유형화를 통해 도출된 네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유형의 집단에서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머니가 더 우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자녀 양육에서 모성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연구[37]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여전히 자녀양육에 있어 성역할이 고정되어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전술하였듯이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 있어 부모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며 청소년기 자녀와 의사소통 면에서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신건강[38]과 학교생활 적응[39], 비행을 포함한 문제행동[40]에 있어 중요한 변인임이 간과된 자녀양육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욱 원활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위해 여러 제도적인 보완이 실질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문화적으로 양성의 노동자에게 서로 다른 성역할 기대로 인해 양성의 부모가 공동 양육하는 데 있어 방해요인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시기에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유형화하고, 유형화가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기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중 ‘소통취약형’이 ‘소통원활형’보다 청소년 자녀들의 SNS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편향소통형’과 ‘소통중간형’과의 비교에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로 청소년들의 활동에 있어 대안이 부족했다는 것과 온라인 수업환경이 SNS 중독의 기회와 유혹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의 중독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15][16]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발달 특성상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큰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조절하는 변인으로서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에게 있어 주요한 타자인 부모의 반응에 반영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자아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며 부모의 반응은 거의 모든 일상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아개념은 SNS 중독과 무관하지 않으며,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SNS 중독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의 의사소통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무엇보다 자녀의 전 발달주기에 부모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양성이 자녀양육에 참여할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시기에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유형을 탐색하였고 부와 모를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유형의 지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청소년기 SNS 중독 예방에 있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완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가 인식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추후에는 부모가 인식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추가해 보다 상호적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기 SNS 중독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의 보호자와 의사소통 유형의 영향력에 대한 탐색이 부족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가족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기 자녀들의 발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1] K. H. Kim, H. Y. Moon, S. Y. Hwang, M. S. Yoo, K. H. Kim, Y. H. Yi, Comprehensive Survey on Korean Youth 2020,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1)  
Available from: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7)
- [2] B. R. Kwon, S. E. Choi, An Exploration of Adolescents' Daily Liv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Photovoice Stud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022), Vol.60, No.2, pp.211-230.  
DOI: <https://doi.org/10.6115/fer.2022.014>
- [3] S. Y. Park, Challenges of youth work and youth policy in the post COVID-19 era, *Korea Youth Activity Research*, (2020), Vol.6, No.4, pp.173-194.  
DOI: <http://doi.org/10.36697/skya.2020.6.4.173>
- [4] J. W. Choi, The Effects of COVID-19 Pandemic on the Mental Health of the General Public and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Supporting Measure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21), Vol.60, No.1, pp.2-10.  
DOI: <http://doi.org/10.4306/jknpa.2021.60.1.2>
- [5] M. S. Kim,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Subjective Happiness of Adolescents amid COVID-19 Pandemic: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Peer Suppor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2022), Vol.13, No.3, pp.1901-1912.  
DOI: <http://doi.org/10.22143/HSS21.13.3.132>
- [6]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Youth Media Use and Policy Response II: Teenager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21)  
Available from: [https://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763&seltab\\_idx=0&edomweivgp=R](https://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763&seltab_idx=0&edomweivgp=R)
- [7] Király, O., Potenza, M. N., Stein, D. J., King, D. L., Hodgins, D. C., Saunders, J. B., Griffiths, M. D., Gjoneska, B., Billieux, J., Brand, M., Abbot, M. W., Chamberlain, S. R., Corazza, O., Burkauskas, J., Sales, C.M.D, Montag, C., Grünblatt, E., Wegmann, E., Martinotti, G., Lochner, C., Demetrovics, Z., Preventing problematic internet us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nsensus guidance. *Comprehensive psychiatry*, (2020), Vol.100, 152180.  
DOI: <http://doi.org/10.1016/j.comppsy.2020.152180>
- [8] A. B. Tuck, J. T. Renee, Social networking site us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its associations with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in college students: survey study, *JMIR formative research*, (2021), Vol.5, No.9, e26513.  
DOI: <http://doi.org/10.2196/26513>
- [9] C. Luo, A. Chen, B. Cui, W. Liao, Exploring public perceptions of the COVID-19 vaccine online from a cultural perspective: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two social media platform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elematics and Informatics*, (2021), Vol.65, 101712, pp.1-13.  
DOI: <https://doi.org/10.1016/j.tele.2021.101712>
- [10] Higuchi, S., Mihara, S., Kitayuguchi, T., Miyakoshi, H., Ohi, M., Maezono, M., Nishimura, K., Matsuzaki, T. Prolonged use of internet and gaming among treatment seekers arising out of social restrictions related to COVID-19 pandemic,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2020), Vol.74, No.11, pp.607-608.  
DOI: <https://doi.org/10.1111/pcn.13127>
- [11] J. Y. Yoon, K. H. Cho, S. Y. Bh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VID-19 on Adolescents' Use of Internet Games, Protection Factors and Trigger 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J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2020), Vol.26, No.1, pp.34-44.  
DOI: <https://doi.org/10.37122/kaap.2022.26.1.34>

- [12] J. Y. Rhee, J. Y. Lee,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communication on media device addiction: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2020), Vol.18, No.2, pp.101-118.  
DOI: <https://doi.org/10.35639/DAEHAN.2020.18.2.101>
- [13] S. Y. Kim, C. R. Nho, Y. K. Son, The effects of adolescents' mobile phone dependency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16), Vol.47, No.3, pp.251-277.  
DOI: <http://doi.org/10.16999/kasws.2016.47.3.251>
- [14] M. Brand, K. S. Young, C. Laier, K. Wöfling, M. N. Potenza, Integrating psychological and neurobiological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specific Internet-use disorders: An Interaction of Person-Affect-Cognition-Execution (I-PACE) model,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2016), Vol.71, pp.252-266.  
DOI: <https://doi.org/10.1016/j.neubiorev.2016.08.033>
- [15] S. Y. Ji., B. Y. Kim, Dual Mediation Effects of Life Stress and Multidimen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on Association between Parents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martphone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021), Vol.27, No. 3, pp.261-288.  
DOI: <http://doi.org/10.29318/KER.27.3.10>
- [16] H. S. Lee, A Convergence Study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Parent-Son/Daughter Communication on Addiction to Smartphones :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 of Stress Level, Self-Control and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6), Vol.7, No.4, pp.163-172.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6.7.4.163>
- [17] V. Chidambaram, K. Shanmugam, S. Parayitam, Parental neglect and emotional wellbeing among adolescent students from India: social network addiction as a mediator and gender as a moderator,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2022), pp.1-19.  
DOI: <https://doi.org/10.1080/0144929X.2022.2046164>
- [18] G. Ballarotto, B. Volpi, R. Tambelli,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and the use of Instagram: The mediation role of psychopathological risk,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21), Vol.18, No.8, 3965.  
DOI: <https://doi.org/10.3390/ijerph18083965>
- [19] H. M. Kwon, The effect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youth's SNS 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anxiety, *Myongji University, Master Thesis*, (2016)
- [20] U. Avci, F. G. Karaoglan Yilmaz, R. Yilmaz, Parental attitude and Instagram addiction: The mediating role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sychology in the Schools*, (2022), Vol.60, No.3, pp.830-842.  
DOI: <https://doi.org/10.1002/pits.22796>
- [21] K. M. Galvin, B. J. Brommel,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Glenview, Ill: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6)  
DOI: <https://doi.org/10.4324/9781315663982-15>
- [22] F. Powers,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 The Free Press, (1977)  
DOI: [https://doi.org/10.1111/j.1545-5300.1977.517\\_4.x](https://doi.org/10.1111/j.1545-5300.1977.517_4.x)
- [23] E. J. Lee, H. S. Kim, Gender differences in smartphone addiction behaviors associated with parent-child bond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al mediation among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dictions nursing*, (2018), Vol.29, No.4, pp.244-254.  
DOI: <http://doi.org/10.1097/JAN.0000000000000254>
- [24] V. Chidambaram, K. Shanmugam, S. Parayitam, Parental neglect and emotional wellbeing among adolescent students from India: social network addiction as a mediator and gender as a moderator.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2022), pp.1-19.  
DOI: <https://doi.org/10.1080/0144929X.2022.2046164>
- [25] E. J. Lee, H. S. Kim, Effect of Maternal Factors on Problematic Smartphone Use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Effect of Maternal Factors on Problematic Smartphone Use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21), Vol.18, No.17, 9182.  
DOI: <https://doi.org/10.3390/ijerph18179182>

- [26] Y. K. Oh, The Effect of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Children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on Smart-phone Addiction : The mediated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Master Thesis, (2015)
- [27] K. N. Lee, H. H. Kim, The Relationship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on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2019), Vol.17, No.3, pp.27-36.
- [28] J. E. Moon, Mediating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 Thesis, (2018)
- [29]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survey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NIA Publication No. 120019), (2019)  
Available from: <https://www.nia.or.kr/common/board/Download.do?bcIdx=21939&cbIdx=65914&fileNo=1>
- [30] Y. K. Oh,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on Loneliness,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ocial Support, Korea counseling university, Master Thesis, (2012)
- [31] S. H. Cho, K. H. Seo,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Related with SNS Addiction Proneness: Focus on Covert Narcissism,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and Sense of Alienation, (2013), Vol.18, No.1, pp.239-250.  
DOI: <https://doi.org/10.17315/kjhp.2013.18.1.014>.
- [32] S. T. Lanza, M. E. Patrick, J. L. Maggs, Latent transition analysis: Benefits of a latent variable approach to modeling transitions in substance use, Journal of drug issues, (2010), Vol.40, No.1, pp.93-120.  
DOI: <https://doi.org/10.1177/002204261004000106>
- [33] J. Huh, N. R. Riggs, D. Spruijt-Metz, C. P. Chou, Z. Huang, M. Pentz, Identifying patterns of eating and physical activity in children: a latent class analysis of obesity risk, Obesity, (2011), Vol.19, No.3, pp.652-658.  
DOI: <https://doi.org/10.1038/oby.2010.228>
- [34] K. L. Nylund, T. Asparouhov, B. O. Muthén,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07), Vol.14, No.4, pp.535-569.  
DOI: <https://doi.org/10.1080/10705510701575396>
- [35] H. S. Shin, Latent Profile Analysis on Academic Achievement,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Happiness of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015), Vol.28, No.1, pp.53-76.  
UCI: G704-000051.2015.28.1.010
- [36] Y. M. Son,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communication with parent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perceived emotional competence and stress coping methods: Focus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University, Master Thesis, (2009)
- [37] U. J. Sung, H. J. Lee, Effect of Parents' Communication Methods on the Formation of Self-esteem in the Childre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2021), Vol.12, No.6, pp.643-656.  
DOI: <https://doi.org/10.22143/hss21.12.6.46>
- [38] J. S. Han,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f Family Functions on Mental Health of Children: Focusing on High School Students, University of Seoul, Master Thesis, (2006)
- [39] M. S. Nam,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Mother,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 Thesis, (2006)
- [40] Y. J. Choi, The Effect of the Type of Communication Between Father and Child on Juvenile Delinquency, Kyonggi University, Master Thesis, (1999)